

‘명품 나주배’ 정진채 대표, 전국 품평회 ‘최우수상’

‘나주목사골농장’ 과수 생육·품질 등 세밀한 모니터링
나주농업기술센터 공유…품질관리·기술 보급 기여도

명품 나주배의 명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 품평회’에서 나주목사골농장 정진채 대표가 ‘최우수품종상’ (한국과수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품평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와 정읍시가 공동 주관하고 우리한국배연구회가 주최한 행사로, 전국 배 농가들의 품질과 재배기술을 겨뤘다.

이중 최우수상을 받은 정진채 대표는 2017년부터 배 재배를 시작해 현재 0.5

ha 규모 과수원에서 신고배 100주(40년생 70주, 7년생 30주)와 원황배 30주를 재배하고 있다.

과수의 생육 상태와 기상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며 가지 생장, 잎색 변화, 과실 비대 과정 등을 꼼꼼히 기록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나주배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며 생육 상황, 병해충 발생, 기상 피해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결과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와 공유하며 현장 정보를 적극 교류하고 있다.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기술센터의

지도 방향과 현장 의견을 연계하는 협력적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나주배의 품질 관리와 기술 보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정 대표는 “현장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기술센터와 의견을 나누다 보면 더 나은 재배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배움의 자세로 명품 나주배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정진채 대표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나주배 산업 전체의 자부심”이라며 “세밀한 관찰과 책임감으로 현장 모니터링의 본보기가 됐다. 앞으로도 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와 기술 보급을 강화해 ‘맛과 신뢰로 인정받는 명품 나주배’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



나주목사골농장 정진채 대표(오른쪽)가 최근 열린 ‘제21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 품평회’에서 ‘최우수품종상’을 수상했다.

광주도시공사, 일·가정 양립 행복한 일터 문화 확산

수능 수험생 자녀 응원으로 가족친화 실천

광주도시공사는 11일 ‘일·가정 양립 실천 다짐 행사’를 열어 직원이 행복하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이번 실천 다짐에는 △임직원 삶의 균형 존중 △휴가 제도 활성화 △소통과 배려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이 핵심 항목으로 담겼다.

공사는 유연근무제 정착, 휴가 이용 편의성 향상, 내부 소통 강화 등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유연근무제 정착, 휴가 이용 편의성 향상, 내부 소통 강화 등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유연근무제 정착, 휴가 이용 편의성 향상, 내부 소통 강화 등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휴가 제도는 실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조직문화 부문에서는 부서 간 정례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해 제도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직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에게 응원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하며, 직원 가족의



광주도시공사는 11일 ‘일·가정 양립 실천 다짐 행사’를 열어 직원이 행복하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노력을 함께 격려했다.

김승남 사장은 “일·가정 양립 문화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려면 회사의 적극적 참여와 직원 간 끊임없는 소통이 필수”라

며 “가족친화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동신대, 졸업예정자 입사지원서 첨삭클래스 ‘인기’

맞춤형 컨설팅…취업역량 평균 1.07점 올라 만족도 ↑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취업경쟁력을 높였다.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입사지원서 첨삭클래스(졸업생) 프로그램의 하나로 ‘입사지원서 첨삭클래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입사지원서 컨설팅을 제공해 서류전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9월10일부터 11월6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돼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에 맞춰 경험을 정리하고 입사지원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직무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세심한 컨설팅으로 면접 예상질문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취업역량은 사전 3.08점에서 사후 4.15점으로 평균 1.07점 향상됐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해’ 영역은 1.63점이나 상승했다.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83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0.21점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보건행정학과 4학년 송은영 학생은 “막막했던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면서 “대학 생활 경험을 직무와 연결해보고,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입사지원서 첨삭클래스(졸업생) 프로그램의 하나로 ‘입사지원서 첨삭클래스’를 운영했다.

제적인 팀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내년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1회기 컨설팅을 ‘직무 연계 경험 발굴’ 중심으로 개편해 학생들의 실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신대 안민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장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취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 빛고을초, ‘~모두의 그림책 전시회’ 호응

학부모·학생·교사 참여

광주 빛고을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모임인 ‘빛글독서회’가 주관한 ‘내맘 속 모두의 그림책 전시회’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든 참여형 독서문화 행사로, 공동체 협력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회는 지난 3일부터 학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프로젝트다. ‘함께 읽고, 함께 꾸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기획돼, 학부모들이 직접 그림책을 공부하고 추천 도서를 선별했다. 이후 학

교 도서관과 복도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학생들의 감성과 독서 흥미를 높였다.

특히 ‘그림책 추천해주세요~’라는 설문문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선정한 도서를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됐다. 제목 선정, 공간 꾸미기, 퀴즈 이벤트, 책 읽어주기 봉사 등 모든 과정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축제 기간에는 학부모회가 직접 만든 가족 키팅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꿈을 응원했다.

박현라 빛글독서회 회장은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감동이었다”며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광주 빛고을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모임인 ‘빛글독서회’가 주관한 ‘내맘 속 모두의 그림책 전시회’ 모습.

최미영 교장은 “학부모의 따뜻한 참여가 학교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

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전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장성군-경희사이버大, 평생학습도시 실현 ‘맞손’

군민·공직자 등록금 최대 50% 감면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신봉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군민·공직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역 기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사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공직자는 50%, 장성군민과 공직자 가족은 30%까지 수업료가 감면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면 거의 무료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군은 찾아가는 한글교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



민과 공직자 평생학습을 위하여

획이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도 이어간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배움의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장성’의 가치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광주서구새마을회는 최근 무안군과 해남군 일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자연생태를 배우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광주서구새마을회, 에너지 절약·자연생태 보전 실천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해남 산이정원 등 견학

광주서구새마을회(회장 배창숙)는 최근 무안군과 해남군 일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자연생태를 배우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원 2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무안 남악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을 방문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물을 관람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학습했다.

이어 해남 산이정원을 방문해 계절별 다양한 식물과 생태자원을 관찰하며 자연 속에서 휴식과 함께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배우는 생태 탐방 활동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며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구새마을회 관계자는 “이번 선진지 견학은 에너지 절약과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교육과 실천 운동을 꾸준히 이어나 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f1404@gwangnam.co.kr

인사

광주시 남구 ◇6급 승진이결 △진월동장 직무대리 이인태 △월산4동장 직무대리 김미희 △통합돌봄과장 송윤숙 ◇6급 전보 △백운1동장 교고선 △산전총괄과장 성장웅 △효덕동장 정동원